

##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이형실\*<sup>1)</sup>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Relatio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Career Maturity for Adolescents

Lee, Hyong Sil\*<sup>1)</sup>  
*Prof.,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rel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career maturity among adolescents. Data was collected from 425 middle school students who reside in Seoul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e method used for data analysis wa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using Amo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parenting behaviors affected peer relations of adolescents. Peer relations influenced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indicated that peer relation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career maturity.

**Key words:** 부모의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또래관계(peer relations),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

---

---

1) 교신저자: Lee, Hyong-Sil,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The Republic of Korea  
Tel: 02-820-5397, Fax: 02-812-5311, E-mail: hslee97@hotmail.com

## I. 서론

청소년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신의 흥미, 성격, 능력, 적성, 가치관 등을 파악하고 미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Cha, 2014).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진로태도 형성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김충기, 1991). 청소년기에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함께 진로를 탐색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를 갖지 않는다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경제적인 자립과 함께 주체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므로, 청소년기에 진로에 관한 행동과 의식 발달을 돕는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Cha, 2014).

진로 준비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발달과정을 거쳐 성숙되어 가는데, 진로성숙이란 진로의식, 탐색 및 결정 등 개인의 진로발달 단계에서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진로 계획, 결정 및 행동을 잘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개인이 도달한 수준을 의미한다(Jung, 2006; Seol, 2010 재인용). 진로성숙도는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겪는 경험과 직업에 대한 지식이나 기대감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직업선택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며 계획 수립, 직업 선호에 대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Lee & Han, 1997; Cha & Lee, 2014 재인용). 급격한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변화 과정에서 청소년은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며 삶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기 위해서 진로에 대한 성숙된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개인마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직업에 대한 지식 및 기대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태도와 성숙 정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장석민, 임두순, 송병민, 1991).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또래괴롭힘 현상과 청소년 폭력, 자살 등의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 외에 또래로 사회적 관계가 더욱 더 확장되므로 진로발달에 있어서 부모 뿐 아니라 또래의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요인을 밝힌 연구들에서 부모

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이라고 인식할 경우 청소년 자녀의 진로에 대한 준비성, 독립성, 확신성이 높으며(Kim, 2013),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보호해주는 태도를 취할수록 자녀의 진로의식 성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2).

이처럼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가 맺는 사회적 관계, 특히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간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에 의하면,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Jung, 2002), 과보호적이거나 돌봄이 부족한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igby, Slee, & Cummingham, 1999).

또한 청소년기에는 부모 뿐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도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Felsman & Blustein, 1999). 많은 연구들이 또래와의 관계, 또래 애착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 정도가 진로성숙도의 태도 면에 영향을 준다(Lee, 2001). Park과 Lee(2010)의 연구에 따르면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진로의식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으나,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행동과 진로성숙도가 관련 되는 다양한 경로를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의 연구들을 확장하여,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더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또래관계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통합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없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청소년기에 점차 더 중요해지는 또래관계를 통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가 서로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가정과 교육의 과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계가 있는가?
2.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진로성숙도간 관련성에서 매개역할을 하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부모의 양육행동과 진로성숙도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자녀 관계 또는 애착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 자율적이라고 지각할 때 진로확신이 높았고,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적이라고 지각할 때 진로결정능력이 낮았다(Lee & Cho, 2004). 부모의 지지가 많을수록(Lee & Mun, 2011; Keller & Whiston, 2008), 부모와의 친밀한 유대관계나 애착이 강할수록 청소년은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이 촉진되며 진로선택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lustein, 1989; Lee, Kim, & Kim, 2013 재인용).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직업적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경향이 있으며(Kracke, 2002), 부모의 양육방식이 긍정적으로 지각될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았다(Hyung, 2002).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Lee, Kim, & Kim, 2013) 부모자녀 관계와 진로의식 성숙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간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어머니로부터 애정적인 양육을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자녀는 또래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과 신뢰감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서로에 대한 인정 그

리고 또래와의 교제를 통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Jang & Chang, 2012).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자녀는 긍정적인 또래애착을 형성하며 부모가 거부적이고 과보호하는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는 긍정적인 또래애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g & Lee, 2012). Bu(2001)와 Yoon(2010)은 자녀에게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안정된 또래애착을 형성하고 적대적, 거부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불안한 관계 속에서 또래관계 형성에 역기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한 연구(Kim, Kim, & Kim, 2013)에서도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또래애착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또래 괴롭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n, 2009). 어머니의 과보호, 학대, 방임적 양육행동을 경험한 남아 아동의 또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며 (Kim, 2005), 부모의 방임적 양육은 자녀가 또래로부터 공격피해를 많이 경험하는데 영향을 미친다(Kim, 2005; Lee, 2004).

### 3.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

청소년기의 친구는 청소년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친구와 형성된 안정적 애착은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Ha, 2006). Lee(2000)는 청소년기에는 친구에 대한 애착이 커지면서 친구와의 우정이 진로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래 애착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유능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경험하며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게 된다(An, 2008). 친구와의 애정적인 관계는 진로성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Yoon, 2011), 최근에는 진로의식 성숙에 대한 또래애착의 영향력이 부모애착의 영향력보다 크다는 것을 밝힌 연구(Park, 2007; Seol, 2010)도 있다. 진로성숙도와 관련하여 중학교 2학년에서는 부모애착이 중요한 요인이나 중학교 3학년 이후로는 또래애착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애착보다는 또래애착이 진로성숙과 더 관련성이 높았다(Yoo & Cho, 2007; Seol, 2010 재인용). 한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또래관계는 진로의

식 성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Kim, & Kim, 2013). 반면에,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비슷한 정도로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래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더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결과를 밝힌 연구들도 있다(Lee, 2012; Park, Lee, Lee, & Jung, 2011).

### I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4개 중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총 6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51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질문지 8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25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남학생이 185명(43.5%)이었고 여학생이 240명(56.5%)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형제, 자매 수는 두 명인 경우가 292명(6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외동이 64명(15.0%), 세 명이 58명(13.6%)의 순이었다. 한 달 가구 소득은 350만원에서 500만원(33.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0만원에서 350만원(24.2%), 500만원에서 650만원(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부모의 양육행동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ho(2002)가 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중 애정-적대 6 문항과 자율-통제 6문항의 총 12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으로 지각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적대적,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애정-적대 .771, 자율-

통제 .828로 나타났다.

##### 2) 또래관계

또래관계의 측정변인은 또래관계의 질과 또래괴롭힘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의 질은 높고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또래관계의 질. An(2008)의 친구관계에 대한 기능적 특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15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37로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 또래 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하여 Yang(1999)의 또래 괴롭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 괴롭힘 평가 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인지하는 또래 괴롭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13으로 나타났다.

##### 3)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im(2006)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Crites(1978)의 CMI(진로성숙검사: Career Maturity Inventory)를 토대로 Lee와 Han(1997)이 수정하고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척도를 다시 수정한 척도인데, 이 중 에서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등 3개의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신뢰도는 결정성 .858, 목적성 .840, 확신성 .821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계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측정변인의 정규분포 가정은 왜도와 첨도를 통해 위반여부를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analytic variables

Variable	N	M	SD	Skewness(S.E.)	Kurtosis(S.E.)
Parenting behavior(affection)	425	3.80	0.65	-0.38(0.12)	0.09(0.24)
Parenting behavior(autonomy)	425	3.62	0.72	-0.31(0.12)	0.09(0.24)
Peer relations(quality of peer relations)	425	3.93	0.65	-0.12(0.12)	0.59(0.24)
Peer relations(peer bullying)	425	1.72	0.75	1.17(0.12)	0.94(0.24)
Career maturity(determinacy)	425	3.19	0.25	0.18(0.12)	-0.63(0.24)
Career maturity(finality)	425	3.29	0.81	0.15(0.12)	0.02(0.24)
Career maturity(confidence)	425	2.93	0.80	0.44(0.12)	-0.05(0.24)

살펴보았다.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chi^2$ ,  $\chi^2/df$  값, 상대적 적합지수(CFI : Comparative Fit Index), 표준적합지수(NIF : Normed Fit Index), 원소 간 평균차이(RMSEA : Root Mean Error of Fit Index), 비표준적합지수(TLI : Tucker-Lewis Index), 기초적합지수(GFI : Goodness of Fit Index), 조정적합지수(AGFI : Adjust Goodness of Fit), 그리고 잔차 평균자승 이종근(RMR :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hi^2/df$ 는 3이하일 때 매우 양호하고, 5이하일 때 양호한 수준으로 간주한다(Song & Kim, 2012). 또한 CFI, GFI, TLI, NFI는 0.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라 할 수 있고, RMSEA는 0.05보다 작으면 매우 적합한 수준, 0.05 - 0.1 사이이면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Hong, 2000). 또한 RMR은 0.05 이하이면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Song & Kim, 2012; Cha, 2014 재인용).

#### IV. 연구결과

##### 1.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측정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분석이 진행되는데, 본 연구에서 포함된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 절대 값은 2 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포함된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부모의 양육행동, 또래관계, 진로성숙도의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의 상관 관계를 살펴 본 결과(<Table 2>), 측정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21에서 .66사이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대와 자율-통제 간 상관계수가 .66으로 가장 높고 또래괴롭힘과 진로성숙도(목적성) 간 상관계수가 -.21로

Table 2.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1. Parenting behavior (affection)	2. Parenting behavior (autonomy)	3. Peer relations (quality of peer relations)	4. Peer relations (peer bullying)	5. Career maturity (determinacy)	6. Career maturity (finality)	7. Career maturity (confidence)
1						
2	.667**					
3	.393**	.415**				
4	.428**	-.288**	-.354**			
5	.284**	.293**	.166**	-.193**		
6	.229**	.280**	.258**	-.210**	.521**	
7	.280**	.264**	.257**	-.268**	.589**	.424**

\*\*\*p<.001

가장 낮았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대 및 자율-통제는 또래관계의 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 그리고 또래괴롭힘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래관계의 질과 진로성숙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또래괴롭힘은 진로성숙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 2. 측정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Figure 1>).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 부하량은 .52과 .84 사이의 수치였으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며 측정모형이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측정모형의 적합

도 지수는  $\chi^2/df=2.803$ , CFI=.976, GFI=.989, TLI=.954, RMSEA=.065로 나타나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구조모형의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chi^2/df$  값은 3.861로 나타나 적합한 수준이었다. 적합도 지수인 CFI는 .979, GFI는 .983, TLI는 .948로서 모두 0.9 보다 높았고, RMSEA는 .082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 모형의 적합도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조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는 <Figure 2>에 제시되었다.

구조모형의 잠재 변인 간 경로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연구 모형의 경로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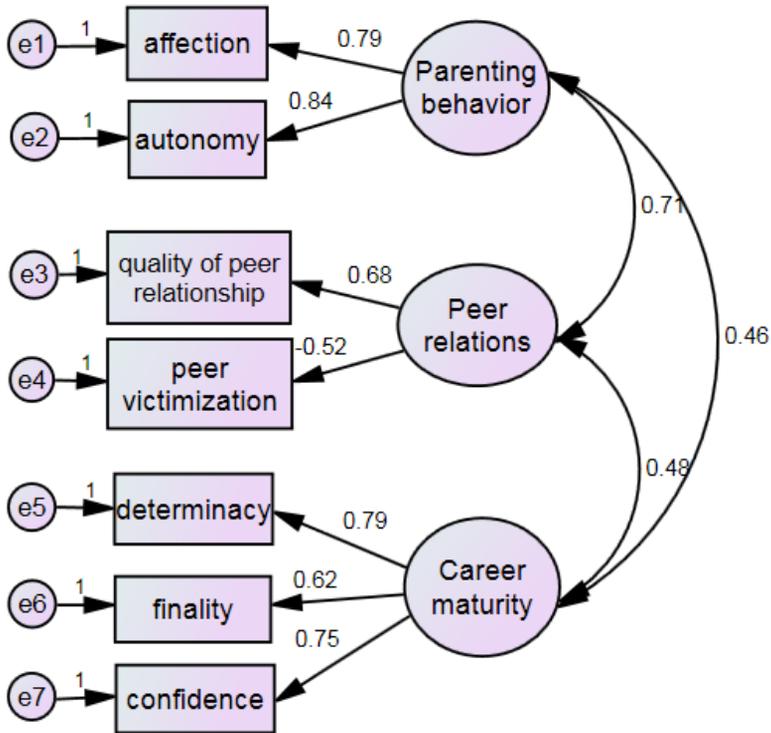


Figur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hi^2=30.838$ ,  $\chi^2/df=2.803$ , CFI=.976, GFI=.980, TLI=.954, RMSEA=.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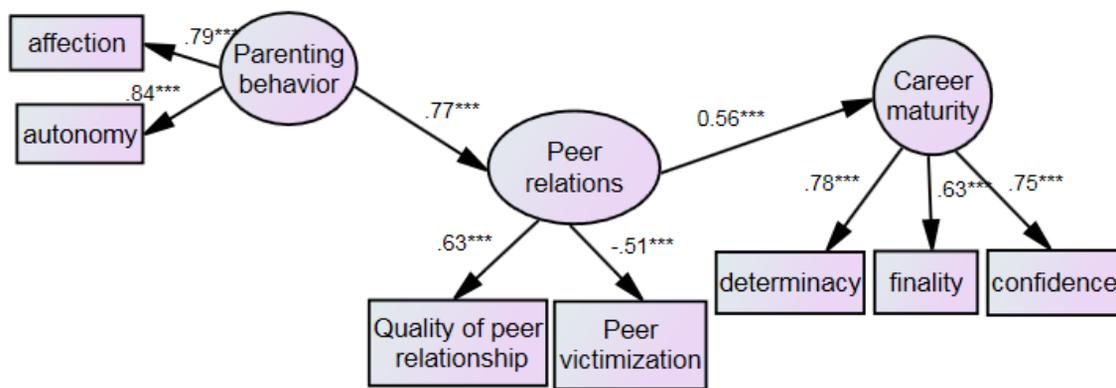


Figure 2. SEM model predicting Career maturity

$\chi^2=33.935$ ,  $\chi^2/df=2.823$ ,  $p=.001$ , CFI=.973, GFI=.978, TLI=.953, RMSEA=.066  
 \*\*\* $p<.001$

부모의 양육행동이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719$ ,  $p<.001$ ).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관계는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719$ ,  $p=.041$ ). 이는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또래관계를 통해 진로성숙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지각할수록 청소년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맺고, 또래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간접효과는 0.429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 즉, 부모의 양육행동과 진로성숙도의 관련성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행동의 직접적인 효과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진로성숙

도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 또래관계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행동과 진로성숙도의 관련성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시에 있는 중학교 3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25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래관계

Table 3. The decomposition of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course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Parenting behavior → Peer relations	.770***	-	.770***
Peer relations → Career maturity	.557***	-	.557***
Parenting behavior → Career maturity	-	.429***	.429***

\*\*\* $p<.001$

는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쳐, 부모의 양육행동은 또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부모양육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이고, 또래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이는 부모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자녀가 맺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Boo, 2001; Jung, 2002; Yoon, 2010)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친구 관계가 좋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난 Lee(2001), Park과 Lee(2010)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부모로부터의 긍정적인 양육 경험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어, 특히 또래가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또 이는 청소년의 미래와 관련된 진로발달 수준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성숙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또래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는 또래관계에 개입을 한다면 진로성숙 수준을 향상시켜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양육경험을 했을 경우에도, 특히 또래관계를 향상시킨다면 청소년의 진로성숙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진로발달 문제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또래관계가 취약한 청소년을 파악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또래관계 향상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진로발달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또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진로성숙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며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 이로 인해 청소년의 진로성숙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청소년의 긍정적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수용하고 자녀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또래관계, 진로발달을 다루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증대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인한 자녀의 문제

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더 취약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이로 인해 청소년의 여러 가지 적응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또래관계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진로발달 즉, 미래에 대한 준비와도 관련되므로 가정, 학교, 사회에서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교육은 단지 진로 뿐 아니라 가족, 또래와도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로발달 교육이나 상담이 청소년 개인뿐 만 아니라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또래관계 같은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인 또래 간의 괴롭힘, 학교폭력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것이 청소년의 진로발달과도 관련이 되므로 진로발달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정교과는 부모역할과 또래관계, 진로발달을 모두 다루고 있는 교과로서, 진로발달을 부모역할, 또래관계와 함께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가정교과에서는 이를 위한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정교과에서 진로발달과 관련된 통합적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증대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발달과업을 성취하도록 도움을 주고 격려, 지지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가정교과에서 진로발달 관련 통합적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가정교과 교사 모임을 활성화하고 교사연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과 교사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학교와 교육 당국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또래관계를 통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진로성숙도의 관련성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으로 제한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하여 부모와 또래 이외의 관련 요인을 포함하며 연령 별로 다양한 집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충기 (1991). *진로교육의 본질*. 서울 : 평민사.
- 장석민·임두순·송병민 (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 교육개발원.
- An H-J (2008). *The effect of attachment upon the career development by intermediating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 Gang University.
- An S-Y (2009). The effects of individual psychology and family variables o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3), 163-176.
- Bu Y-H (2001). *An influence on the age affection and the coped method of stress with a perceived breeding attitude of parents and an emotional quoti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 Cha J-W (2014).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family environment, peer environment and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Cha J-W & Lee H-S (2014).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family environment, peer environment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3), 1-15.
- Cho, Y-N (2002). *A study on the perceived interparental conflicts and parenting attitudes on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ymptom*.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2), 194-203.
- Crites, J. D. (1978). *The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MI*. Monterey, Calif: CTB/Mcgraw-Hill.
- Felsman, D. E. & Blustein, D. I. (1999).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2), 279-295.
- Ha S-H (2006). *The effects of the attachment with parents and friends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The role of self-efficacy as a mediat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yungnam University.
- Hyung M-J (2002).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Jang I-S & Chang S-J (2006).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6), 291-313.
- Jeong Y-H & Lee I-S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child's separation-individu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1), 225-248.
- Jung M-G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s perception of the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the peer relationshi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Keller, B. K. & Whiston, S. C. (2008). The role parental influence on you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Quarterly*, 46(2), 167-178.
- Kim S-M (2005). *The relation of maternal parenting, self-esteem, and peer victimiz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Kim J-H (2006).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system,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J-H (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youth's self-esteem on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Myungji University.
- Kim H-J (2013). *The effect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on career maturity: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joo University.

- Kim E-K, Kim H-S, & Kim S-G (2013).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adolescents' peer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8), 303-324
- Kracke (2002). The role of personality, parents and peers in adolescents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5(1), 19-30.
- Lee E-K. (2000).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 Lee H-S (2001). *A study on a coeducation technical high school girl's career maturity and its related environment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 Lee Y-S (2004). *The individual variables,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al variables that affect victimization by peer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 Lee J-S (2012).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on adolescents' career cho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 Lee H-S (2014).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peer relation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4), 1-9.
- Lee K-H & Han J-C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8, 219-255.
- Lee H-S & Cho H-I. (2004).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the effect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on achievement goal and career deci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6(1), 89-105.
- Lee J-H & Mun E-M (2011). The effects into juvenil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by parental career suppor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1), 173-188.
- Lee H-Y, Kim H-W, & Kim E-A (2013). The effects of parents-children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5(2), 443-466.
- Park J-E (2007). *How the communication and attachmen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parents' upbringing attitudes influence the children's self-esteem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argeting female middle, high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un-Yang University.
- Park M-R & Lee J-Y (2010). Testing the effects of person variables and school education on career maturity.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1(1), 65-88.
- Park J-E, Lee J-A, Lee J-Y, & Chung I-J (2011). The influence of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povert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3), 93-116.
- Rigby, K., Slee, P., & Cunningham, R. (1999). Effects of parenting on the peer relations of Australian adolesce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9(3), 387-388.
- Seol C-M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mental health, attachment to friends and parents and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Song T-M & Kim G-S (2012). 보건복지 연구를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한나래.
- Yang W-K (1999). *The relations between peer acceptance and peer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Yoon J-A (2010). *A Study on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 attachment on peer attachment and aggression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ersity.
- Yoon H (2011). A study on predictive factors for and gender differences in career maturity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 Work Practice & Research*, 8, 97-124.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행동과 진로성숙도의 관련성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시에 있는 중학교 3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25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래관계는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쳐, 부모의 양육행동은 또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관계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 상담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또래관계를 통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과 진로성숙도의 관련성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5년 11월 30일, 논문심사일자: 2015년 12월 07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12월 25일